

식물 품은 도서관, 쾌적하고 집중 잘 되고

농진청, 수직 정원 조성... 만족도 5점 만점에 4.31점
식물에 대한 이해 돕기 위해 반려식물 체험도 진행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도서관 안에 수직 정원을 조성한 결과, 공기 질 개선을 비롯해 쾌적함과 집중력 면에서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직 정원(바이오월)은 식물의 잎과 배양토(흙)의 미생물에 의해 공기를 정화하는 식물-공기청정기시스템으로, 2013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했다

연구진은 전북혁신도시 농생명분야 공공기관 연계 협력사업으로 지난해 말 전북 완주군 공주팔리도서관 1층 책카페에 스킨십서사 산호수 등 공기정화식물 336본(그루)을 넣어 수직정원을 조성했다

이해 도서관 이용자 80명을 대상으

로 수직 정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3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도서관 분위기가 좋아졌다(4.38점)'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다(4.24점)' '집중이 잘 된다(4.05점)'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도서관 운영 시간의 공기 질을 9개월 동안 확인한 결과, 수직정원을 조성한 책카페는 초미세먼지(PM2.5) 13.2㎍/㎥, 아무것도 조성하지 않은 공간은 14.6㎍/㎥로, 수직정원을 조성한 공간의 초미세먼지가 9.4% 낮은 것을 확인했다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수직정원 조성 공간은 531ppm, 미조성 공간은 557ppm으로, 수직정원 조성 공간이



도서관 내 조성된 수직 정원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4.0% 낮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수직 정원 조성 후 식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인과 아동, 총 120명을 대상으로 공기정화 식물·반려식물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식물에 대해 알게 됐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다며 만족감과 함께 지속적인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식물의 오염 물질별 저감 능력 평가, 오염물질 종

/김윤성기자



LX - KDIC, 감사업무

선진화 협력플 구성 협약

LX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성기청·LX공사)와 예금보험공사(상임감사 이한규·KDIC)가 감사 전문성 강화 및 선진화를 위해 협력한다

LX공사 성기청 상임감사와 KDIC 이한규 상임감사는 25일 LX공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감사 선진화를 위한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면서 전문성 강화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감사역량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ESG 경영 추진 지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공유 ▲정부 정책과 연계된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LX공사 성기청 상임감사는 "차후 감사가 아니라 사전 감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 혁신사세를 발굴하는 한편 ESG 경영 강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KDIC 이한규 상임감사도 "양 기관이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토대로 업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우수성과를 공유해 감사 수준을 높이고 업무 선진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기자



농식품유통공사 - 나주시

저탄소 식생활 확산 '맞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나주시(시장 강인규)와 25일 나주 본사에서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식품과 확산을 위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실천 ▲로컬푸드 등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ESG 가치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Net Zero(탄소중립)'를 실현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으로, 공사는 지난 9월 선포식을 갖고 대국민 확산에 나서 현재까지 약 88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사와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에 선정된 바 있는 나주시가 협업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합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나주시와의 협약을 로컬푸드 기반의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지자체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상생 등 ESG경영 실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기자

가을배추, 병 피해 방제 철저

최근 잦은 비·높은 온도로 병 발생 문의 많아
무름병·노균병·검은무늬병 등 주의해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최근 잦은 비와 높은 온도로 가을배추에서 평년보다 병 발생 문의가 많으며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최근 가을배추 아주심기 후 잦은 비(평년대비 7일↑)와 평균기온(평년대비 3.1도↑)이 높아 무름병 등 배추의 병 피해 관련 임상진단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무름병에 감염된 배추는 초기 잎의 밑동에 물에 젖은 듯한(수침상) 반점이 나타나고 이것이 열은 갈색 반점(병반)으로 변해 썩으면서 점점 위쪽으로 번진다. 감염 부위는 물러지고, 썩어 악취가 나며, 심하면 배추 전체가 물러 썩게 된다

무름병의 병원균은 토양으로 전염된다. 식물 표피를 직접 뚫고 침입하지는 못하지만, 농업용수(관개수), 빗물, 토양곤충 등을 통해 식물체의 상처 부위로 침입한다. 가을배추의 경우에는 숙이 차는 시기인 초가를 온도가 높고 비가 많으면 발생이 잦다

무름병이 발생하면 병든 식물체를 바로 제거하고, 등록된 약제를 뿌려 방제해야 한다. 병든 식물체를 그대로 두면 농약 살포 효과가 눈에 띄게 줄어들프로 즉시 제거해 재배지를 깨끗

하게 관리해야 한다. 수확 후에도 병든 배추가 재배지에 남아있지 않게 정리해야 병원균 밀도를 낮춰 이듬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노균병과 검은무늬병도 주의해야 한다

노균병은 배추 재배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 처음에는 잎 표면에 반점이 생기는데, 이후 잎 뒷면에 하얀 이슬 같은 곰팡이가 많이 형성되고 잎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썩고 말라 죽는다

검은무늬병에 걸린 배추도 잎에 작고 검은 둥근 반점이 형성돼 점차 겹동근무늬로 확대되다가 잎 전체가 누렇게 말라 죽는다

노균병과 검은무늬병은 대부분 배추의 바깥 잎부터 발생한다. 병든 잎은 발생 초기에 제거하고, 등록된 약제를 뿌려 주변의 다른 배추로 병원균 포자가 전염되지 않게 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최준열 과장은 "가을배추는 아주심기 후 초기부터 무름병 등 병해를 방제해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특히 무름병은 수확 후 재배지 관리가 다음 해 농사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김윤성 기자



골드키위 '감황' 수확

25일 경남 사천시 실안동 키위 시험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골드키위 '감황' 품종을 수확하고 있다. '감황'은 익힌 뒤(후숙) 당도가 19브릭스('Bx')까지 올라 달콤하고 과육의 노란색이 잘 발현되는 장점이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소상공 손실보상,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서류 제출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보상금 확인

신청 어렵다면 도내 시·군·구 오프라인 전담 창구서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 등의 편의성과 신속자원을 고려한 온라인 시스템 중심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제청의 과세지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업장에 산정한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

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제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이의신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

/김윤성기자

JB카드 가을맞이 '多讀다독 이벤트' 시행

전북은행, 내달 15일까지... 100명 추첨 추천도서 지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JB카드 多讀다독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개인카드 고객 중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명을 추첨하여 JB카드 추천 도서를 지급한다. 또한

'교보문고', '예스24'에서 온라인으로 도서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10%가 캐시백으로 지급된다

은행 관계자는 "책읽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고객들의 여가활동과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

련했다"며 "이 외에도 김장과 캠핑 시즌을 맞아 식재료 구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JB카드 대형마트 품목할인 행사도 진행하니, JB카드에서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벤트 참여 및 상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고객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bank.co.kr), 뉴스미트 뱅킹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성기자

디지털 기반 온라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전기안전공사, LS일렉트릭 등과 상태감시 시스템 확산 협력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국내 굴지의 민간 기업들과 손잡고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5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국내 중전기 제품 제조사인 LS일렉트릭(대표이사 박상용), 현대일렉트릭(대표이사 조석), 효성중공업(대표이사 요코타타케시) 등 3개사와 함께 전기설비 온라인 상태감시 시스템 확산을 위한 기술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의 검사 방식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검사 방식으로 전환해 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기 위한 차원이다

협약에 참여한 4개사 대표들은 이날, 특고압 설비 대상 온라인 실시간 상태감시 시스템 인프라 확산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 AI(인공지능) 기반의 안전진단체계 구축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4개 협력사들은 이를 위해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 단계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설치 유지관리를 위한 KEC(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과 관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